

저여머시!(승리예수!)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깊은 감사와 함께 복된 성탄과 새 해의 인사를 올립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신학교는 가을학기를 대면 수업으로 12월 초에 잘 마쳤습니다. 학생들은 6주 동안의 방학을 마치면 새 해 1월 15일에 모두 돌아와 봄 학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1학년 10명, 2학년 10명, 3학년 12명, 4학년 16명(실습학기)로 총 48명입니다.

지난 11월에는 학장님과 3학년 학생 3명이 카트만두 동남쪽에 위치한 작은 도시(Nawalparasi)를 중심으로 주변의 목회자 또는 신학공부를 원하는 교회리더들을 위한 이동식 신학교(Diploma과정)를 시작하여 5일의 수업이 있었습니다. 총 2년 동안 8회(1회 당 5일 수업, 3과목)의 계획으로 동북부의 한 곳과 병행하여 실시한 뒤 다른 지역에서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 전적으로 후원해 주신 네팔선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 드린 대로 신경수 교수님을 통해 시작된 3곳의 예배당 건축은 느리게나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곳은 6년 전에 산 아래 모교회에서 개척한 산골 작은 교회에 졸업생을 파견하여 단독 목회를 맡겼던 곳인데 다시 더 깊은 골짜기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여 아이들 포함 80여 명이 되어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완공 단계에 있으며 참 감사한 일이지요. 다른 한 곳은 네팔 남쪽 인도 국경에

가까운 평지 마을에 이미 있던 흙집 예배당이 너무 약해 새로 짓게 되었는데 마을 주민들의 반대를 설득해 가며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경찰들도 다녀갔다고 하는데 힌두교가 대부분인 네팔에서는 주민들의 반대로 예배당 건축이 무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의 후원금을 1년 반 동안 모아둔 것으로 이번 겨울 시골 마을 3곳에 겨울용 이불 135장을 구입하여 나누어 드렸습니다. 네팔의 남부지역은 북위 28도 선상에 위치하여 여름에는 섭씨 40도를 웃도는 열대지역이지만 겨울이 되면 0도 가까이 내려가지요. 추위가 이어지는 2-3달 동안 집안에 난방장치가 전혀 없기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여 겨울 구제 사역도 매우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국에 들어와 안식년을 보내는 중에도 문명의 이기 덕분에 카카오를 이용한 보이스톡과 온라인 송금에 전혀 문제가 없어서 현지의 신학교 학장님을 통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이버 대학의 한국어문화학과 3 학기 수업이 끝나고 방학 후에는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었습니다. 가족 모두 평안하며 모든 일에 은혜로 함께하시는 주님께 늘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미크론의 고개를 넘으면 또 어떤 고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시 힘내시고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과 사역들 위에 더욱 알 찬 열매들로 풍성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여머시!